

외통수 걸린 임종룡의 선택은?



이정혁
西村브리핑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란 승부수로 '기사 회생(起死回生)'하는 듯 보였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에 빠졌다.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외통수'에 걸렸다는 말이 맞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 대출건이다. 그동안 은행내에서는 손 전 회장 부당 대출과 손 전 회장 처남의 인사개입건이 풍문으로만 떠돌았다. 그러다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가 부당 대출 가능성을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은 2023년 10월로 알려져 있다. 은행이 1차 자체 조사를 끝내고 조병규 행장과 임 회장 등 현 경영진에게도 보고한 시점은 2024년 3월이다. 이후 5월부터 은행 측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우리은행에 확인을 요구하면서 부당 대출 사건이 8월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의 '늑

장 보고'에 대해 현 경영진을 강하게 질책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우리금융 측에선 "보고를 받기 전까지 부당 대출건에 대해 임 회장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2023년 3월에 취임한 임 회장이 손 전 회장 관련 문제를 취임 1년이나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해 날을 세울 때만 해도 통상 금감원이 시장을 의식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은행장 선에서 사태가 봉합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 회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임 회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퇴 관련 질문에 "지금은 조직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기업문화 혁신 등이 중요하다"고 답해 퇴진보다는 임기를 채우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조 행장이 부당 대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정기검사를 이달 말까지 또 다시 연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조 행장만으로 쉽게 끝날 차원이 아님을 검사 연장으로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금감원 검사와 별개로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 혐의를 들어 지난 18일과 19일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 붙었다. 12조는 '금융회사의 장은 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범한 죄를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고 200만원 벌금을 위해 집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이다.

금감원과 검찰의 압박 수위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정 조준 상대는 임 회장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에게 '당신이 책임지고 나가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외통수'에 걸린 임 회장의 선택지는 버티거나 물러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보인다. 지금의 대국 판세를 보면 결국 임 회장이 백기를 들어야 끝날 수 있다. 예전에도 금감원과 각을 세웠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꽤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결 같았다. '백전백패', 금융사 CEO가 손을 들었다. /ljh@metroseoul.co.kr

확산되는 가축전염병 위기, 방역과 지원이 관건



기지수첩
김대환
(정책사회부)

최근 축산 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립피스킨병(LSD) 등 각종 가축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을 비롯해 돼지와 소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가들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5일, 충청남도 서산의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사례다. 한편, LSD는 8월 12일 첫 사례 이후 총 21건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경기 5

건, 강원 7건, 충북·충남·경북·대구 각각 2건, 전남 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농장에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감염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LSD는 백신 접종으로 대부분 발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AI와 ASF는 치료 방법이 없어 발병 시 살처분이 유일한 방역 수단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이러한 질병들은 확산 시 통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게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 체계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겨울철 철새의 본격적인 국내 도래로 AI 추가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과감한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멧돼지와 철새 등 야생동물이 주요 전염병 매개체로 작용하며 확산되는 상황은 농가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발생 농가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민의 주요 식량을 책임지는 농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kdh@

오늘의 운세 11월 29일 (음 10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어려움이 오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 48년생 늦어도 오늘 걸어야 내일 뚝 떨어지니 게으름 피우지 마라. 60년생 갈팡질팡하다가 때를 놓친다. 72년생 감언이설로 꼬드기는 이가 있으니 신중하. 84년생 시작과 마무리도 산뜻.
- 소** 3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49년생 그래도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실패가 적다. 61년생 가장 큰 보물은 가족이다. 73년생 시간이 많다면 인생이 지루하게 흐른다. 85년생 고생이 밑천이 된다.
- 호랑이** 38년생 하늘을 원망 말고 새로운 일을 찾아라. 50년생 강물이 바다로 나가기 큰 일이 펼쳐진다. 62년생 관세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이동. 74년생 경관은 수려하나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86년생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 토끼** 39년생 가족 간의 다툼은 피하고 양보는 것이 상책. 51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3년생 돈에 욕심을 뿌리면 탈이 나게 마련. 75년생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창업을 해도 발전된다. 87년생 술을 먹고 마찰하지 않도록 해야.
- 염** 40년생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다 내뱉지 마라. 52년생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는다. 64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소화제부터 준비. 76년생 소중한 인연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88년생 작은 먼지가 시야를 가리는 부정함.
- 뱀** 41년생 나이가 있어도 정보수집이 먼저다. 5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 법. 6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한 하루. 77년생 아침부터 영업을 손놓아 뚫을 단 듯 일이 손조름다. 89년생 오늘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
- 말** 42년생 남쪽에서 오는 손님이 귀인. 54년생 주변 뒷안 하지 말고 자신도 노력을 하라. 66년생 이도 저도 심드렁하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78년생 지인과의 계약은 이로운 것이 많다. 90년생 오전에 이직한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 양** 43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을 불러온다. 55년생 격한 언행으로 주변에 괴리감이 생긴다. 67년생 오늘 쉬면 내일이 힘들다. 79년생 어느 것이든 값진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91년생 반란군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원숭이** 44년생 자식들의 밑 빠진 독에 안까지 물을 채울 것인가. 56년생 떠난 인연의 미련을 빨리 떨쳐 버려라. 68년생 기다림이 길어서 마음이 불안. 80년생 좋은 소득 결과를 보기 위해 인내하라. 92년생 내가 가진 특기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 닭** 45년생 모야든 적금으로 경제적 위기를 타파. 57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라. 69년생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니 기쁜 날. 81년생 거레가 역을 해도 다시 변화를 찾아야. 93년생 근거를 마련해서 상대를 설득시켜라.
- 개** 46년생 공연한 칭찬은 오히려 반감을 산다. 58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70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적다. 82년생 풍요로운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기본에 충실. 94년생 하루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바쁘니 고맙다.
- 돼지** 47년생 믿어 주는 이가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59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가라. 71년생 마음에 없는 웃음을 웃어야 한다. 83년생 고지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진행. 95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흉탄을 튀기지 말고 떠나야만 도리.

김상회의四季 스스로 궁구

삶의 행로에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방할 수 없는 재앙이나 가족사에 불행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큰 사건이 아닌 보편적 삶에서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이직이다.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일이다 보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얻을까. 설문 조사를 해보니 많은 직장인이 운세 상담을 자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관련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이직이나 승진과 관련해서 꾸준히 명리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

필자도 직장인들의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다. 많이 질문하는 건 이직에 관한 것이고 결혼 문제 그리고 승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시기가 가장 민감하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개개인의 사주와 운세이다. 사주에 따라 운세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개운 하는 시기를 맞춰 이직하는 게 좋다. 진퇴의 시기에서 열리는 시기에 이직하면 떠나는 곳에서는 나쁜 평가가 남지 않고 새로 취업하는 곳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손해다. 사주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특장점은 물론이고 적성까지 고려해서 긴 시간을 내다 봐야 한다.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인생길을 바꾸는 것과 같다.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있을까. 직장 동료에게 말하는 건 불필요하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해도 말이 새어나가는 건 순간이다. 일차적으로는 친구와 이야기해볼 수도 있지만 일하느라 지친 친구가 때마다 노력을 기울여서 성의 있게 들어주는 힘들다. 해법은 결국은 자신의 팔자를 펼쳐보고 스스로 궁구하는 수밖에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스도쿠 3650

스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9			
	1		6					
8		5			6			
5	7	4	8					
		7	6	3	9			
	5			1				6
			7				8	
4	1		5	2				

		6	5	9				8
					3			6
4	2			6				
	8					1		
7	4						2	9
		9				8		
			3			2		1
	6		4					
9			8	5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